

포스트휴먼의 공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채 리**

【주제분류】 기술철학, 문화철학

【주 요 어】 포스트휴먼, 인간의 본성, 도덕적 지위, 종차별주의, 불평등

【요 약 문】

이 글의 목적은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포스트휴먼에 대해 가지는 공포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에 있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F1)포스트휴먼화는 비인간화이며 이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유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F2)포스트휴먼의 출현은 인간에 대한 불평등과 학살을 이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F1)과 (F2)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것이 아님을 비판한다. 첫째, (F1)은 포스트휴먼화가 비인간화를 증명할만한 명확한 인간개념을 제시하지 못하며, 포스트휴먼화가 비인간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유해한 것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F2)는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우월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잘못된 믿음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가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와 비도덕적인 가정에 의존하는 공포는 포스트휴먼을 반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필자는 포스트휴먼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비인간의 경계 해체와,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이며, 기술과 인간이 점차 융합되어가는 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계관과 도덕률은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진정한 의미를 기반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3-G)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교육전담교수

1. 들어가는 말 : 포스트휴먼의 공포

나노(nano)기술, 생명공학, 로봇공학, 정보기술, 인지신경과학 등, 현대의 최첨단 기술들은 인간의 몸에 컴퓨터 나노 칩이나, 로봇, 인공장기, 줄기세포 등을 이식함으로써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치료와 향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신마비 환자가 로봇 팔을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으며,¹⁾ 시각 장애인들이 생체공학적인 인공 눈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 가능해졌으며,²⁾ 줄기세포를 통해 노화된 연골 재생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다.³⁾

기술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기술의 극치가 구현되는 날에 이르면 아마도 우리 인류는 노화된 기관을 인공 기관으로 교체하고, 나약한 신체 대신 강화된 인공 신체를 사용하며, 뇌의 일부를 컴퓨터화하여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명과 건강과 지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⁴⁾ 인간은 다차원의 세계를 지각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으며, 영생을 누릴 것이다. 기억의 용량을 극대화시킨 컴퓨터 칩과 빨리 달릴 수 있는 로봇다

- 1) 로봇 팔 이식은 미국 브라운대 병원과 하버드 의대가 2012년 5월에 성공한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Brain Machine Interface)이다. 이들 대학은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된 59세 여성에게 뇌파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팔 이식에 성공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2012년 5월 18일자 인터넷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8002011>.
- 2) 생체공학적인 인공 눈은 2013년 2월 미국의 SSMP사가 개발한 인공망막 시스템으로 희귀 유전병인 망막색소병변증 환자들에게 시력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함께걸음』, 2013년 2월 8일자 인터넷 기사,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3>.
- 3) 최근 국내의 메디포스트 생명과학 연구소는 줄기세포가 연골재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생성해낸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데일리 메디』, 2013년 7월 23일자 기사,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69695§ion=1>.
- 4) 나타샤 비타-모어(Natasha Vita-More)는 포스트휴먼의 두뇌에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눈에는 맵(map) 데이터 시스템이 장착되고, 귀는 가청 주파수가 확대되어 있고, 다리는 터보엔진이 달려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www.natasha.cc/primo.html>.

리, 노화되지 않는 인공피부를 지닌 인간은 현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일종의 새로운 단계의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 및 기계와의 융합을 통해 탄생되는, 새로운 단계의 인간을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고 부른다.

포스트휴먼은 기존의 인간과 달리 기계와의 합성으로 구성된 존재이며, 신체는 교체가능하고 정신은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환영할만한 것인가? 보스트롬(N. Bostrom), 커즈와일(R. Kurzweil), 워릭(K. Warwick) 등은 인간 수명의 연장, 질병과 한계의 제거, 신체, 정신, 사회적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한다. 이들은 향상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인간이 융합되는 것을 지지하며 한계를 지닌 인간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일을 환영한다.⁵⁾ 이들에게 기술과 인간의 융합은 인간 진화의 새로운 단계다.

반면에, 후쿠야마(F. Fukuyama), 카스(L. Kass), 샌델(M. Sandel), 안나스(G. Annas) 등은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암울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거부한다.⁶⁾ 이들에게 포스트휴먼은 인간이 아닌, 소름끼치는 비인간이고, 인간을 해치는 공포적인 존재이다.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들의 공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⁷⁾

(F1) 포스트휴먼은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이며, 이것은 유해하다.

(F2) 포스트휴먼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5) Maestrutti, M., "Cyborg Identities and Contemporary Techno-Utopia", Journal International de bioethique, Vol. 22, No. 1-2, 2011, 71-3쪽.

6) 예를 들어 카스는 포스트휴먼화는 비인간화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안나스는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평범한 인간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협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Kass, L., Life, Liberty and Defense of Dignity : The Challenge for Bioethics, Sanfrancisco : Encounter Books, 2002, Annas, G., "Cell Division", Boston Globe, April 21, 2005.

7) 포스트휴먼에 대한 두 가지 공포는 다음을 참조한 것이다. Bostrom, N., "In Defense Of Posthuman Dignity", Bioethics, Vol. 19, No. 3, 2005, 203-14쪽.

(F1)은 인간이 포스트휴먼으로 변화될 때 생기는 유해성에 대한 공포이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기술 및 기계와의 융합은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유해하다고 본다.

(F2)는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포스트휴먼이 아닌 평범한 인간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공포이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향상되지 않은 평범한 인간은 포스트휴먼의 출현으로 인해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포스트휴먼을 위한 노예나 실험의 대상이 될 위협에 처한다고 본다. 즉 포스트휴먼의 출현은 사회에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에게 포스트휴먼은 새로운 단계의 진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누리던 것을 빼앗는 터미네이터(terminator)인 셈이다.

과연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공포는 그럴듯한 것인가?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포스트휴먼은 평범한 인간을 짓밟는 위협적인 존재인가? 이러한 공포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 이 글은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공포를 분석하고 그 공포가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F1)은 모호한 인간 개념에 의존하며, 포스트휴먼화가 유해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F2)는 도덕적 지위의 위계 구조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종차별주의적 가정에 의존함을 비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공포는 포스트휴먼을 반대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포스트휴먼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의 순서는 우선 (F1)의 근거를 분석하고 비판하며(2장) 다음으로 (F2)가 의존하는 가정들을 비판한 후(3장), 포스트휴먼의 진정한 의미를 조명하는(4장) 것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포스트휴먼의 비인간화 공포와 인간의 개념

2-1. 비인간화의 유해성에 대한 공포

(F1) 포스트휴먼은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이며, 이것은 유해하다.

(F1)은 다음 두 주장의 연언으로 이루어진다.

(F1-1) 포스트휴먼은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이다.

(F1-2) 비인간화는 유해하다.

즉, (F1)은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상이한 존재라는 것을 상정하는 (F1-1)과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것은 해로운 것이라는 (F1-2)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F1-1)의 근거는 무엇인가? 포스트휴먼을 인간과 상이한 존재로 구별하는 근거는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전제하는 인간 본성 개념에 의존한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환경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주어진’, ‘전형적인’, ‘공통된’ 어떤 것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카스는 인간의 본성을 “주어진 것”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후쿠야마는 그것을 “인간 종의 전형적인 행동과 특성의 총합으로서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유전적인 요소에 기인하는⁹⁾”, “모든 인간 존재가 공통적으로 소유한 어떤 것”¹⁰⁾-이것을 그는 ‘요소 x’라고 부른다.¹¹⁾-이라고 규정한다. 즉 이들에게 인간의 본성은 조작되지 않은 공통된, 전형적인 본질 같은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인간 본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포스트휴

8) Kass, L., "Ageless Bodies, Happy Souls : Bio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Perfection", *The New Atlantis*, spring, 2003, 19쪽.

9) Fukuyama, F., 송정화 역,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2009, 202쪽.

10) 앞의 책, 230쪽.

11) 앞의 책, 261쪽.

면은 인간의 본성과 상이한 특성들을 지닌다. 포스트휴먼은 자연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전형적인 인간 종만이 아닌 동물, 기계, 유기체가 혼합된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기술에 의해 조작된 포스트휴먼은 인간 종의 전형적인 특성들의 총합인 인간의 본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으며,¹²⁾ 카스는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바퀴벌레가 되는 것만큼이나 인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¹³⁾

다음으로, 비인간화가 유해하다는 (F1-2)의 근거는 무엇인가?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지적하는 비인간화의 유해성은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다. 그들은 인간을 기술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비인간화이며, 비인간화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그들이 보기에 인간의 본성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인데 포스트휴먼화는 인간의 본성을 조작하여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은 인간을 존엄하게 해주는 숭고한 어떤 것이며, 존엄성의 근거인 이것을 변질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예컨대 카스는 인간의 본성은 훌륭하고 성스러운 것이며,¹⁴⁾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므로 이 특별한 선물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⁵⁾ 또한 후쿠야마는 인간에게는 생김새나 피부색, 사회적 계층, 성별과 같은 우연적인 특성이 아닌,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공통된 본성인 x 가 존재하며, 그 x 가 인간의 존중 받을 가치를 부여하는 존엄성의 근거라고 한다.¹⁶⁾

즉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에게 인간의 본성은 숭고한 존엄성의 근거이며,

12) 앞의 책, 262쪽.

13) 카스는 “인간이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은 비인간화되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 이상의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한다. Kass, L., 앞의 책, 19쪽.

14) 앞의 책, 37쪽.

15) 샌델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인간을 향상하는 기술을 비판한 바 있다. Sandel, M., 강명신 역, 『생명의 윤리를 말한다』, 동녘, 2012, pp.130-47, Kass, L., 앞의 책, 20쪽.

16) Fukuyama, F., 앞의 책, 229쪽.

이것을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곧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 카스는 인간의 본성을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인간에게 균등화, 평범함, 진압, 약물주입에 의한 만족 등의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존재는 인간이 아닌 '만족한 소'라고 말한다.¹⁷⁾ 훌륭하고 성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조작하면 비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도 함께 소멸된다는 것이다. 소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지 않듯이 포스트휴먼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2-2. 비인간화의 공포는 유효한가?

(F1)은 공포스러운가? 필자는 (F1)을 이루는 (F1-1)은 그 전제인 인간의 본성 개념이 모호하며, (F1-2)의 비인간화의 유해성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2-2-1. 인간 본성 개념의 모호성

(F1-1)의 전제인 인간 본성 개념은,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에 의하면, '주어진 것', '전형적인', '공통된' 어떤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그러한 개념은 인간/비인간을 명확하게 구별할만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우선, 후쿠야마가 말하는 인간 종의 '전형적인 행동과 특성의 총합'이며, 모든 인간 존재의 '공통된' 것으로서의 인간 본성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다만 'x'로만 표현된다. x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하며 포스트휴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카스가 인간 본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주어진 것'은 그 반대 개념으로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조작된 것'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도 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면 교육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

17) Kass, L., 앞의 책, 48쪽.

은 존재들 역시 조작된 인간일 것이며, 따라서 그들을 비인간적 존재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어진 것'이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면 현대인들 가운데 인간으로 인정될 존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 보스트롬은 수렵-채집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인도 조작된 포스트휴먼이라고 말한다.¹⁸⁾ 사실 현대인은 수렵-채집인에 비하면 '덜 주어진'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 현대인은 주어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주어진 기억의 용량을 초과하여 지식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주어진 신체 조건을 극복하여 안경을 쓰고 인공 고관절을 사용한다. 출산은 예전과 달리 병원에서 하며, 인공 수정이 가능하고, 주어진 각종 질병은 의학으로 해결한다. '주어진 것'이라는 인간 본성 개념은 상대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근거에서 현대인은 주어진 인간이고 포스트휴먼은 조작된 비인간이 되는 것인가? '주어진 것'과 '조작된 것'의 명확한 구분선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스트휴먼을 조작된 비인간이라고 규정하는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2-2. 유해성 근거의 빈약함

(F1-2)가 제시하는 비인간화의 유해성의 근거는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성스럽고 훌륭한 것으로서 존엄성의 근거이므로 이것을 조작하는 것은 결국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과연 존엄성의 근거가 될 만큼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스트롬은 카스가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자연의 선물인 인간의 본성은 종종 끔찍할 만큼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본다.¹⁹⁾ 자연의 선물은 때때로 암, 말라리아, 치매, 노화, 기아, 불필요한 고통, 인지적 결핍 등을 불러오며, 인종주의, 집단 학살, 강간, 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에 취약

18) Bostrom, N., 앞의 책, 213쪽.

19) 앞의 책, 205쪽.

한 측면들도 포함하곤 한다. 보스트롬은 이러한 자연의 선물은 오히려 인간에게 유해한 것들이며 카스의 주장과는 달리 존경하고 존중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²⁰⁾

또한 카스는 포스트휴먼에로의 변화가 인간의 훌륭한 특질들을 타락시켜 '만족한 소'의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보았으나, 오히려 보스트롬을 위시한 포스트휴먼 옹호자들은-이들을 트랜스휴머니스트(transhumanist)라 부른다²¹⁾- 포스트휴먼에로의 변화가 인간의 특질들을 보다 더 도덕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 포스트휴먼은 무한한 건강, 지능 뿐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과 새로운 감수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²²⁾ 포스트휴먼이 갖게 될 감정 통제 능력과 뛰어난 공감 능력²³⁾은 인간 보다 더 타인을 잘 돕고 자선을 베풀 줄 아는, 보다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본성의 숭고함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향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 옹호자들은 포스트휴먼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롭고 인간적으로 유익한 이익을 수여받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⁴⁾

즉, 보스트롬 및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본성이 반드시 존경할만한 특질들을 지닌 것은 아니며, 또한 본성을 기술에 의해 향상시키는 일은 반드시 인간의 특질들을 존경스럽지 못한 특질로 하락시키는 것도 아니다.²⁵⁾ 그러므로 포스트휴먼에로의 변화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

20) 앞의 책, 205쪽.

21) 포스트휴먼을 옹호하는 부류에는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옹호와 경계 해체를 역점에 두는 옹호로 나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전자에 해당한다.

22) 앞의 책, 203쪽.

23) 포스트휴먼 기술은 타인의 뇌와 연결된 신경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감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미 워릭은 2002년 자신의 부인과 신경체계의 신호를 주고받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Warwick, K., "Cyborg morals, Cyborg value, Cyborg ethic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5, No.3, 2003, 135쪽.

24) Bostrom, N., 앞의 책, 203쪽.

손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그러나 오마수나(Donal P. O'Mathuna)는 보스트롬이 인간의 존엄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⁶⁾ 그는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 존경할만한 특질들을 지녔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어서 존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²⁷⁾ 즉 카스나 후쿠야마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특질을 지녔는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에서-카스에게는 '주어진 것',²⁸⁾ 후쿠야마에게는 'x'라는 점에서- 존엄성을 지닌다고 본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존엄하고, 반대로 비인간은 인간이 아니기에 존엄하지 않은 것이다. 오마수나는 이를 '내재적인 존엄성'이라고 부른다.²⁹⁾

그러나 필자는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전제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가 이러한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의 결점은 더 커진다고 본다. '훼손'은 무엇인가를 손상시켜 해를 입히는 유해한 것인데, 그들의 주장으로는 그 유해성을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존재 P가 비인간인 Q가 되었고, Q가 된 P는 인간 보다 월등하게 도덕적인 행위를 잘 하고, 자선을 잘 베풀며, 탁월한 공감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도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P가 Q가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유해하다고 주장할 것이며, 그 근거로 '비인간화'를 제시할 것이다. 내재적 존엄성의 관점에서 비인간화는 인간 존엄성의 훼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는 P의 인간 존엄성의 훼손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포스트휴먼

25) 필자의 논지는 포스트휴먼이 반드시 도덕적 성품을 향상하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두려워하는 인간 특질의 하락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볼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26) O'Mathuna, Donal P., 이화인문과학원 역, 「인간 존엄성과 인간 향상의 윤리」,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126쪽.

27) 오마수나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임(being human)과 동일시된다고 본다. 앞의 책, 112쪽.

28) 앞의 책, 126쪽.

29) 앞의 책, 112쪽.

반대자들은 비인간화의 유해성의 근거로 인간 존엄성의 훼손을 제시하면서 인간 존엄성의 훼손의 근거로 다시 비인간화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 “P가 Q가 되는 것은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점에서 유해한데, 그 이유는 P가 Q가 되어서이다.” 과연 P는 어떤 점에서 인간 존엄성의 훼손을 겪은 것인가? 이러한 무의미한 동어반복으로는 P의 비인간화가 왜 인간 존엄성 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해줄 수 없다.

즉 (F1-2)는 비인간화의 유해성을 두려워하는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공포인데,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비인간화가 어떤 점에서 유해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포스트휴먼화-이것이 비인간화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는 인간의 존경할만한 특질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기보다 향상시키며, 비인간화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주장은 그것이 어떤 점에서 유해한지를 동어반복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이 비인간이 되므로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다시 (F1-1)의 모호한 인간 본성의 개념으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존엄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비인간이 누구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화가 비인간화이며 그래서 유해하다는 (F1)은 별반 공포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그들의 공포를 증명할 만한 인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포스트휴먼화의 유해함을 설명할 구체적인 근거 역시 제시하지 못한다.

3. 포스트휴먼의 위협에 대한 공포와 종차별주의

3-1. 불평등과 학살에 대한 공포

(F2) 포스트휴먼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F2)는 포스트휴먼의 출현으로 인해 인간은 포스트휴먼 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포스트휴먼을 위한 노예화나 학살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포이다. 예를 들어 후쿠야마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자를 미리 선택하거나 조작하여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포스트휴먼은 평범하게 태어난 인간 보다 도덕적 지위³⁰⁾가 높으며, 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³¹⁾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말안장을 등에 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화나 박차를 차고 태어난다면 정치적 권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³²⁾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평범한 인간은 말안장을 등에 얹을 수밖에 없는 권리만을 가지는 반면, 유전자가 우월하게 조작된 포스트휴먼은 그 위에 얹어 박차를 가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전자의 도덕적 지위가 권리 'R1...R6'를 수여한다면 후자의 도덕적 지위는 그보다 적은 권리 'R1...R3'만을 수여하는 셈이다.³³⁾ 예를 들어 포스트휴먼 종의 생명권을 인간의 생명권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정치 행위에서의 투표권에서의 차별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안나스(G. Annas)는 “개량된 포스트휴먼은 필수불가결하게 인간

30) 도덕적 지위란 그것을 점유한 존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고려되고 대우 받을 권리를 할당받게 하는 지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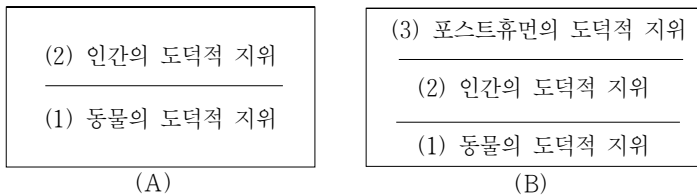
31) 후쿠야마는 자신의 책에서 생명공학을 통해 우월하게 조작된 포스트휴먼이 평범한 인간을 도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거나 하대할 위험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우월하게 조작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보다 열등한 친구를 보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것이며(28쪽), 유전자 귀족계급이 유전자 하층계급의 권리보다 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한다.(235쪽) 앞의 책, 28쪽, 235쪽.

32) 여기에서 후쿠야마가 말하는 정치적 권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도덕적 평등에 기인한 정치적 평등에 따른 권리를 의미한다. Fukuyama, F., 앞의 책, 28-9쪽.

33) 후쿠야마는 전자를 유전자 귀족 계급이라고 부른다. 앞의 책, 235-40쪽.

을, 인간 하위종과 마찬가지로, 실험, 노예화, 심지어 말살에 적합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³⁴⁾ 인간이 자신 보다 낮은 지위의 동물들을 실험하거나 도구화하고 도살해왔던 것처럼 인간 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점유한 포스트휴먼 역시 하위 종인 인간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F2)는 아래의 그림의 도덕적 위계구조 (A)에서 (B)로의 변동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A)가 현재의 도덕적 위계구조이며, (B)는 포스트휴먼이 출현하는 미래사회의 위계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B)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A)에서 인간은 최고의 도덕적 지위인 (2)를 점유하지만 (B)에서는 (3)의 등장으로 인해 그럴 수 없으며, (A)에서 인간은 동물들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B)에서는 인간 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포스트휴먼이 인간을 실험 도구나 학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포스트휴먼이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3-2. 정당하지 않은 가정들

필자가 보기에 (F2)는 두 가지 가정에 의존한다.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은 언제나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점유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이며, 두 번째 가정은 존재의 도덕적 지위의 위계 구조는 존재의 우월성을 기준으로 결정

34) Annas, G., 앞의 책, 51쪽.

된다는 가정이다. 필자는 이 가정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F2)의 첫 번째 가정부터 살펴보자. 후쿠야마나 안나스 등의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A)는 정당한 것으로 느끼지만, (B)는 불평등을 양산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공포를 느낀다. 이것은 인간만이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즉 인간이 최고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간을 위해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A)의 구조)은 정당하지만, 인간이 다른 피조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B)의 구조)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가정은 정당한 것인가?

서양철학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정당성의 근거로 가장 오래 동안 제시되어 온 것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뷰캐넌(A. Buchanan)은 '이성에 의해 상호의무(mutual accountability)를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인간이 (A)와 (B) 모두에서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주장한다.³⁵⁾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상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도 도덕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자신도 그 규칙을 준수하기로 계약할 능력을 지닌다.³⁶⁾ 뷰캐넌은 이러한 능력은 동물에게는 없으므로 인간은 동물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의 권리를 위해 동물이 희생되는((A)의 구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포스트휴먼이 인간보다 이성에 의한 상호의무를 계약할 능력이 더 뛰어나더라도 인간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소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도덕적 지위는 이 능력의 '있고 없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 능력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⁷⁾ 예를 들어 우리는 대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35) Buchanan, A., "Moral Status and Human Enhancement",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37, no. 4, 2009, 361쪽.

36) Rachels, J., 김기순 역, 『도덕철학』, 서광사, 1989, 214-9쪽.

37) 뷰캐넌은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적 지위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한계 개념이라고 말한다. Buchanan, A., 앞의 책, 360쪽.

반드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희생시켜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상호의무를 계약할만한 이성적 능력의 등급을 매겨 가장 하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⁸⁾ 따라서 포스트휴먼이 인간 보다 이성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거나 인간을 도구화하고 학살하는((B)의 구조)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간은 상호의무를 계약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의무를 계약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고 동물에게는 없다는 뷰캐넌의 주장에는 반례들이 존재한다. 원숭이나 침팬지 등도 그러한 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능력의 정도는 인간인 신생아나 유아나 정신지체인의 능력보다 높기 때문이다. 인간이 최고의 지위를 점유하는 근거가 이성적 능력이라면 신생아 보다 높은 이성적 능력을 지닌 침팬지 역시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도덕적 지위가 침팬지 보다 높다고 규정하는 것은, 신생아가 침팬지에게는 없는 이성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인간종의 일원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이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근거는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있는 셈이다. - 이성적 능력 외에 언어, 사회성, 자발성, 자유의지 등을 제시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몇몇 동물들은 신생아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인간들 보다 그러한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래서 후쿠야마는 뷰캐넌과 달리, 인간의 본성을 이성, 언어, 사회성 등

38) 앞의 책, 364-5쪽.

39) 싱어는 성인, 유인원, 원숭이, 개, 고양이, 쥐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아이들에 비해 스스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들에 비해 더 자발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후쿠야마 역시 침팬지가 감탄사적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정치관과 흡사하게 정략적인 행동을 함을 인정하고 있다. Singer, P., 김성한 역, 『동물해방』, 인간사랑, 1999, p.153. Fukuyama, F., 앞의 책, 222쪽.

과 같은 특정한 특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 종의 전형적이고 총합적인 어떤 'x'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x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제공하는 근거라고 말한다.⁴⁰⁾ 즉 인간은 x를 가졌기 때문에 (A)나 (B) 모두에서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점유하는 이유가 다른 피조물의 y나 z가 아닌 인간의 x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x로 인간의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은 인간이기에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인간 중심주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주의를 인간만이 지닌 특성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싱어(P. Singer)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불평등하며, 비도덕적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인간종이라는 이유에서 여타의 피조물과 달리 최고의 도덕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소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에 대해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종차별주의(speciesism)의 일환이기 때문이다.⁴¹⁾ 싱어에 따르면 종차별주의는 평등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은 모든 존재의 동일한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즉 존재의 종,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존재의 동일한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소속한 종을 근거로 특별히 다른 종에 비해 이익을 더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어긴다.⁴³⁾ 즉 종을 근거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이

40) 후쿠야마는 자신의 책에서 이성, 언어, 사회성 등 어느 한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 종의 전형적인 인간 본성이 있으며 그것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여 인간의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Fukuyama, F., 앞의 책, 226쪽.

41) 종차별주의란 자기가 소속한 종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Singer, P., 앞의 책, 2012, 35쪽.

42)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이익은 서로 다르게 서로 같은 이익은 서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성한, 「종차별주의 옹호에 대한 대응-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2007, 255쪽.

43) Singer, P., 앞의 책, 39쪽.

속한 성별,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주장하는 성차별주의, 인종주의가 비도덕적인 것처럼, 자신이 속한 종을 근거로 이익의 차별을 주장하는 종차별주의 역시 비도덕적이다.⁴⁴⁾ 다시 말해서 인간만이 최고의 도덕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는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즉 (F2)는 이러한 불평등하고 비도덕적인 가정에 의존한다. 그들은 (A)와 (B)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A)를 허용해야 한다면 (B)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혹은 (B)가 부당하다 판단된다면 (A)의 부당함 역시 인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전자를 택한다면 그들은 포스트휴먼의 출현에 대해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후자를 택한다면 동물 보다 높은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후자를 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세 단락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F2)의 두 번째 가정을 살펴보자.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인간이 동물 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지위를 점유한다고 믿으며, 현재의 도덕적 지위의 위계 구조를 (A)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A)의 구조를 거울삼아 미래에는 인간 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 포스트휴먼이 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것((B)의 구조)이라고 상상한다.⁴⁵⁾ 이러한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상상은 '존재의 도덕적 지위의 위계 구조가 우월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믿음은 옳은 것인가?

우월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믿음은 존재의 동일한 이

44) 싱어는 인종차별, 성차별이 비도덕적인 것만큼 종차별주의 역시 비도덕적이라고 본다. 앞의 책, 27-39쪽.

45) 후쿠야마는 인간의 x가 동물의 언어, 사회성, 정치성 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다른 피조물보다 높은 존엄성을 가지며(244-260쪽) 유전자조작으로 향상된 유전자 귀족계급은 평범한 인간보다 높은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한다(239-240쪽) 그리고 안나스는 (A)와 마찬가지로 (B)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한다. Fukuyama, F., 앞의 책, pp.244-260쪽, 239-240쪽, Annas, G., 앞의 책, 51쪽.

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 이익동등고려의 원칙과 합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 줄을 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지능이 우월하므로 야구장에 입장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평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의 동일한 이익인 야구장 입장을, 우월성을 근거로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어긴다. 이것은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잘못된 믿음에 따라 상정한 (A)와 (B)의 구조는 모두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A)에서의 동물실험은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함'과 관련된 '동일한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어긴다. 싱어는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이 적용될 대상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존재이며, 여기에서 이익을 가질 전제 조건은 쾌고감수능력(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말한다.⁴⁶⁾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들은 쾌고감수능력을 지니며, 인간과 동일한 이익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을 지니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동물과 인간의 동일한 이익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⁴⁷⁾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휴먼이 인간을 노예화하거나 학살하는 (B)의 구조 역시 인간과 포스트휴먼의 동일한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휴먼이 인간 보다 더 우월한 특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을 실험도구로 사용하거나, 그들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⁴⁸⁾ 인간과 동물, 포스트휴먼은 어느 존재가 더 우월한가에 따

46) 앞의 책, 37쪽.

47) 물론, 인간에게는 영화관에 입장할 권리, 투표권, 정치행위에 대한 권리를 주면서 토끼에게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우가 아니다. 토끼와 인간은 영화를 보는 행위, 투표, 정치행위와 관련된 '동일한 이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48) 물론, 포스트휴먼은 초음파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경우, 포스트휴먼에게 초음파로 이루어지는 강의실에 들어갈 권리를 할당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월한 사람이 도덕적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동일하지 않은 이익을 다르게 취급하여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권리를 할당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익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권리를 할당받아야 하는 것이다.⁴⁹⁾

다시 말하면 (A)는 후쿠야마나 안나스가 생각한 것과 달리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이며, (B)는 후쿠야마나 안나스가 생각하듯 최고로 대우받아야 하는 인간에게 가해 행위를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에 위배됨으로써 불평등한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A)와 (B) 모두를 부당한 것으로서 거부해야 한다.

정리하면,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B)에 대한 공포는 우월성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잘못된 믿음과 비도덕적인 인간 중심주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F2)의 공포의 근거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공포에 대한 화살은 포스트휴먼이 아닌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문제 삼는 불평등의 문제는 그러한 불평등을 거부할만한 도덕률을 구비하지 못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⁰⁾

49) 예를 들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이익은 인간, 동물, 포스트휴먼 모두의 동일한 이익이며, 투표권, 문화 행사 입장권 등의 이익은 인간과 포스트휴먼의 동일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50) 현실적으로, 포스트휴먼에 의한 학살이나 도구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과거 역사에서 부당한 인종차별, 노예제도, 성차별이 있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포스트휴먼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첫째, 그러한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둘째, 이러한 예측이 포스트휴먼을 반대할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본다. 과거의 인종차별, 노예제도, 성차별 등에 대해 도덕률과 법률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일이 병행되었던 것처럼, 종차별 역시 도덕률 및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동물학대는 법적으로 규제가능하다. 물론 성차별, 흑인차별 등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존재하고 있듯이 우리가 종차별주의의 부당함을 인지하더라도 종차별적 행위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흑인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백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처럼 포스트휴먼으로부터의 학살이 있을 법하다는 이유로 포스트휴먼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포스트휴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도덕률과 법률을 구비하는 것이다.

4. 포스트휴먼의 의미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는 것은 비인간이 되는 것이며, 포스트휴먼의 출현은 인간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공포는 그 공포가 전제로 하는 인간 개념이 모호하며, 그 공포가 의존하는 가정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한 공포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며,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스트롬을 위시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비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상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⁵¹⁾ 그들은 포스트휴먼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허약한 신체를 벗어나 정신적 능력을 극대화시켜 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유토피아로 바라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비인간이 되는 것도 인간임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비인간이 접합된 '잡종'이다.⁵²⁾ 포스트휴먼은 동물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뒤섞이고, 기계와 유기체가 접합된 잡종으로서 순수하게 인간인 것도 비인간인 것도 아니다. 포스트휴먼의 신체는 기계 및 동물과 이음새 없이 접합된 유기체-기계이며, 의식은 인간과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에게 비인간과 정확한 경계를 이루는 인간만의 살, 뼈, 유전자, 의식, 지능은 없다.

즉, 유기체, 컴퓨터, 기계가 하나로 합쳐진 포스트휴먼은 인간/비인간의 경계가 해체된 존재이다. 포스트휴먼 기술인 유전공학 기술은 유전자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간의 경계를 넘어서며,⁵³⁾ 컴퓨터공학 및 로봇공학은 인간의 의식과 경험, 신체를 시뮬레이션하여 인간/컴퓨터, 로봇의 경계를 넘어선다. 인간만이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던 생물학적 기질, 유기체적

51) 보스트롬은 인간은 역동적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Bostrom, N., 앞의 책, 213쪽.

52) Haraway, Dana J.,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1991, 268쪽.

53) 김선희, 『과학기술과 인간 정체성』, 아카넷, 2012, 33-4쪽.

신체, 의식, 이성은 포스트휴먼에게는 더 이상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헤일즈(N. Katherine Hayles)는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기질은 필수불가결함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며, 의식은 부수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⁵⁴⁾ 포스트휴먼에게 인간만의 고유한, 필수불가결한 기질은 다양한 동물 중, 기계와 절대적인 구분선을 갖지 않는다.

포스트휴먼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 된다. 포스트휴먼의 생각과 행동의 전 과정은 유기체, 기계, 로봇, 동물이 서로 연결된 채 이루어진다. 포스트휴먼은 뇌, 유기체와 컴퓨터기계, 로봇과의 연결을 통해 기억을 저장하고, 수백차원의 지각을 하고, 계산과 추리를 하며,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과 기계의 의식은 분리되지 않는다. 즉 기계와 인간은 포스트휴먼 내에서 함께 사고하고 기억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헤일즈에 따르면, ‘타자의 의지와 독립된 자율적인 이성’이 근대 철학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자주 제시되곤 했지만, 포스트휴먼에게는 타자의 의지와 구별된 자아에 속한 의지, 힘, 욕구가 있다는 가정 자체가 무효화된다고 말한다.⁵⁵⁾ 인간과 비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자아와 타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비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비인간의 경계가 해체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에게 인간과 비인간의 절대적 구분은 없으며, 인간과 비인간은 하나로 연결된다. 헤일즈, 해러웨이(Dana J. Haraway) 등의 포스트휴머니스트들(posthumanist)은 이러한 포스트휴먼을 통해 계몽주의 휴머니즘과 그것의 이원론을 대체하는 인간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⁵⁶⁾ 계몽주의 휴머니즘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며 정합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

54) Hayles, N. K., *How We Became Posthuman*,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1999, 3쪽.

55) 앞의 책, 3쪽.

56) Philbeck, Thomas D., 이화인문과학원 역, 『포스트휴먼 자아 : 혼합체로서의 도전』,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27쪽.

을 통해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을 양산해왔다. 그리고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은 전자가 우월한 것으로서 후자를 통제하고 차별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즉 인간과 비인간을 구별하는 이분법은 인간에 해당하지 않는 비인간적 특성들을 타자로서 통제하고 차별해왔다.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이러한 이원적 사고는 인간과 기계가 점차 밀착되어 가는 현대 기술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포스트휴먼은 그 이분법이 해체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해러웨이에 따르면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이 해체된 존재로서의 포스트휴먼은 주체인 인간이 비인간적 타자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지배/피지배의 구조를 해체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⁵⁷⁾

다시 말해서 포스트휴먼이라는 존재는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지배구조의 해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특성임을 규정하는 이분법이 해체된다는 것은, 인간임을 근거로 비인간적 존재들의 이익을 차별하는 인간 중심주의나 종차별주의의 전제를 소멸하는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이 뒤섞인, 인간/비인간의 경계가 해체된 포스트휴먼은 인간 개념에 기대어 인간만이 최고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⁵⁸⁾ 따라서 포스트휴먼의 출현은 인간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이 사라짐을 사실로서 경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 체계를 해체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포스트휴먼이 된다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해체된 존재가 되는 것이며,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사회에 부여하는 의미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해체이다. 포스트휴먼은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믿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 중심주의가 근거가 없

57) Haraway, Dana J., 앞의 책, 265-96쪽.

58) Badmington, N., "Theorising Posthumanism", *Cultural Critique*, 53, winter, 2003, 15쪽.

음을 몸소 표현하는 존재이다.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인간/비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종차별주의는 타과되어야 할 이기적인 환상이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에게서 비인간화와 종차별적 위계구조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포스트휴먼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 다루어진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은 포스트휴먼화가 비인간화이며 이것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유해하며, 포스트휴먼의 출현은 불평등과 학살을 이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본다.
2. 포스트휴먼 반대자들이 전제하는 인간 개념은 인간/비인간을 구별하는 명백한 기준이 아니므로 포스트휴먼화가 반드시 비인간화라고 규정할 수 없다.
3. 포스트휴먼화가 비인간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유해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미약하다. 첫째, 포스트휴먼화는 존경할만한 특질들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며, 둘째, 그러한 향상이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면 그것이 어떤 점에서 유해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4. 포스트휴먼의 출현이 불평등과 학살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은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우월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잘못된 믿음과 불평등한 인간 중심주의적 가정에서 비롯된다.
5. 포스트휴먼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비인간의 경계 해체이며,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글은 포스트휴먼에 대한 두 공포는 명확하지 않은 근거와 비도덕적인 가정에 근거하며, 따라서 이러한 공포를 통해 포스트휴먼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인간/비인간의 경계 해체와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포스트휴먼을 잘못 이해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포스트휴먼에 대한 공포는 기술과 인간의 융합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휴먼이 유토피아적인 낙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과거 인간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도 비도덕적인 일들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스트휴먼 사회로 진입해가는 현 시대에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세계관과 도덕률을 구비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근대적 이분법과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근대적 이분법과 종차별적 인간 중심주의로는 포스트휴먼 중심의 종차별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 로봇,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여 새로운 단계의 인간으로 진입하는 현 시대에-이미 어떤 점에서 우리는 포스트휴먼이다- 인간은 더 이상 타자인 비인간과 독립된 주체가 아니며, 타자인 기술 및 기계들과 공진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비인간의 네트워크적 세계관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Annas, G., "Cell Division", Boston Globe, April 21, 2005.
 Badmington, N., "Theorising Posthumanism", Cultural Critique, 53, winter, 2003.
 Bostrom, N., "In Defense Of Posthuman Dignity", Bioethics, Vol. 19, No. 3, 2005.

- Buchanan, A., "Moral Status and Human Enhancement",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37, no. 4, 2009.
- Douglas, T., "Human Enhancement and Supra-Personal Moral Status", *Philosophical Studies*, Vol. 162, 2013.
- Fukuyama, F., 송정화 역,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2009, Kass, L., *Life, Liberty and Defense of Dignity : The Challenge for Bioethics*, Sanfrancisco : Encounter Books, 2002.
- Haraway, Dana J.,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1991.
- Hayles, N. K., *How We Became Posthuman*, Chicage : The Unive. of Chicage, 1999.
- Kass, L., "Ageless Bodies, Happy Souls : Biotechnology and the Pursuit of Perfection", *The New Atlantis*, spring, 2003.
- Kass, L., *Life, Liberty and Defense of Dignity : The Challenge for Bioethics*, Sanfrancisco : Encounter Books, 2002.
- Maestrutti, M., "Cyborg Identities and Contemporary Techno-Utopia", *Journal International de bioethique*, Vol. 22, No. 1-2, 2011.
- O'Mathuna, Donal P., 이화인문과학원 역, 「인간 존엄성과 인간 향상의 윤리」,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 Philbeck, Thomas D., 이화인문과학원 역, 「포스트휴먼 자아 : 혼합체로서의 도전」,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대출판부, 2013.
- Rachels, J., 김기순 역, 『도덕철학』, 서광사, 1989.
- Sandel, M., 강명신 역,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동녘, 2012.
- Singer, P., 김성한 역,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2.
- Somerville, M., *The Ethical Imagination : Journeys of the Human Spirit*, Melbourne : Melbourne Unive., Press., 2006.

Warwick, K., "Cyborg morals, Cyborg value, Cyborg ethic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5, No.3, 2003.

김선희, 『과학기술과 인간 정체성』, 아카넷, 2012.

김성한, 「중차별주의 옹호에 대한 대응-이익동등고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철학연구회, 2007.

Vita-More, Natasha, <http://www.natasha.cc/primo.html>.

『데일리 메디』, 2013년 7월 23일자 기사,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69695§ion=1>.

『서울신문』, 2012년 5월 18일자 인터넷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8002011>.

『함께걸음』, 2013년 2월 8일자 인터넷 기사,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3>.

Abstract**Critical Study of the Fear about Posthuman**

Chaelee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fear about posthuman. Opponents of posthuman insist that becoming posthuman is dehumanization and harmful for the dignity of human.(F1)) and that appearance of posthuman leads inequality.(F2)) But, I criticize that both (F1) and (F2) are not valid. First, (F1) can neither suggest accurate concept of human, which verifies that becoming posthuman is dehumanization, nor suggest concrete grounds verifying that becoming posthuman is harmful for the dignity. Second, (F2) originated from incorrect belief that moral status is determined by superiority and depends on the speciesism. Therefore, the fear depending on inaccurate grounds and unethical assumption cannot be reasons for opposing posthuman. And, the posthuman shows that the boundary between human/non-human is deconstructed and speciesism is disintegrated. In this thesis, I point out that opponents of posthuman don't grasp the meaning of posthuman.

【Key words】 posthuman, the nature of human, moral status, speciesism, inequality

논문접수일: 2013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0일